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비눗방울의 흔적을 통한 회화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민 주 미

비눗방울의 흔적을 통한 회화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권 기 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민 주 미

인 준 서

민주미의 석사 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비눗방울의 흔적을 통한 회화적 실험으로 2020 <Breath> 이라는 석사학위 청구 전을 바탕으로 비눗방울의 일시성이 회화 속에서 영속성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일상 속 비눗방울과 비슷한 지점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서술하였다.

모든 사람은 각자 속해져 있는 환경과 규칙 혹은 선호하는 것들에 의해 시각 환경이 조성된다. 먼저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장소 혹은 분위기로 하여금 ‘나’ 개인이 마주 보는 세상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관찰하여 흔적을 남긴다.

비눗방울이라는 물성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배열의 모습이며 현재에만 존재하는 시간성을 내포하는 물성이라고 생각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비눗방울의 물성 적 특징과 비슷한 의미들을 감정,순간, 관계에 대입하여 작업에 표현하였고, 비눗방울의 ‘일시성’과 비슷한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시간성’을 보여주는 특정 장소에서 마주친 ‘찰나의 순간’들과 ‘무작위의 배열’ 속에서 형성 되어진 ‘관계’들을 연구자 시각에 의해 재해석 된 작품 표현 방식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Breath | 3 |
| 1) 작품의도와 배경 | 3 |
| 2) 작품해석과 기법표현 | 6 |
| III. New wave | 10 |
| 1) 작품의도와 배경 | 10 |
| 2) 작품해석과 기법표현 | 11 |
| V. 얼굴들 | 18 |
| 1) 작품의도와 배경 | 18 |
| 2) 작품해석과 기법표현 | 18 |
| VI. 결론 | 24 |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 |
|--|----|
| 【작품1】 No title (비눗방울 드로잉) x , 장지 위 혼합재료 _ 2017 | 5 |
| 【작품2】 No title 2 _ 72.2cm x 53cm _ 장지 위 혼합재료 _ 2017 | 5 |
| 【작품3】 ‘Breath’(스쿠버다이빙)_장지 위 혼합재료_72.2cm x 53cm_2017 ... | 8 |
| 【작품4】 ‘Breath’(동굴) _장지 위 혼합재료_72.2cm x 53cm _2017 | 8 |
| 【작품5】 ‘Breath’(wave) _장지 위 혼합재료_72.2cm x 53cm_2017 | 8 |
| 【작품6】 ‘Breath’(infinity) _장지 위 혼합재료_160cm x 60cm_2017 | 9 |
| 【작품7】 ‘New wave’(산) _장지 위 혼합재료_66.5cm x 21.2cm _2017 ... | 11 |
| 【작품8】 ‘New wave’(바다) _장지 위 혼합재료_66.5cm x 21.2cm_2017 | 13 |
| 【작품9】 ‘New wave’(tree)_장지 위 혼합재료_18cm x 16cm_2018 | 13 |
| 【작품10】 ‘New wave’(tree 2)_장지 위 혼합재료_91cm x 72cm_2018 ... | 13 |
| 【작품11】 ‘New wave’(under)_장지 위 혼합재료_53cm x 45cm_2017 ... | 15 |
| 【작품12】 ‘New wave’(under the sea)_장지위혼합재료_160cm x60cm_2018 | 15 |
| 【작품13】 20140831 _ 장지 위 혼합재료_72.2cm x 53cm_2017 | 17 |
| 【작품14】 20190222 _ 장지 위 혼합재료_72.2cm x 53cm_2018 | 17 |
| 【작품15】 ‘얼굴들’ _ 크레프트 지 위 혼합재료_146cm x 112cm_2018 ... | 20 |
| 【작품16】 ‘얼굴들’(자화상1) _장지 위 혼합재료_18cm x 16cm_2018 | 20 |
| 【작품17】 ‘얼굴들’(자화상2) _장지 위 혼합재료_18cm x 16cm_2018 | 21 |
| 【작품18】 ‘얼굴들’(자화상3) _장지 위 혼합재료_72.2cm x 53cm_2018 ... | 22 |
| 【작품19】 root _ 장지 위 혼합재료_234cm x 178cm_2019 | 23 |

참 고 도 판

- 【도판1】 Mont Sainte-Victoire_275 × 200 cm_화약의 사이프러스 캔버스_2019_차이귀창 … 4
- 【도판2】 2020 년 9 월 25 일 코냑 샤랑트 강에서 실현됨 , 9 월 25 일 오후 3시 10 분,
15 분 21,915 개의 불꽃놀이, 150 개의 오크 배럴_차이귀창 … 4

I. 서 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배우고 기억하며 경험 속에서 얻어진 기억들은 하나의 인식으로 굳혀진다. 익숙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 행동들과 공간 혹은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마주하였다. 요일에 맞춰 가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행동하는 연구자의 모습을 관찰하며 일상 속 낯설게 다가오는 시각적 트임의 경험적 감정들을 재해석하여 또 다른 인식의 변화들을 기록해보았다.

2020년 석사청구 전시 제목 이었던 <Breath> 의 의미는 작품의 주재료인 비눗방울에 빗대어 표현된 단어이다. 이 단어에서 뜻하는 ‘Breath’는 연구자의 ‘숨’을 통해 나타내어진 비눗방울의 형태로 연구자의 현재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되어진 장면들을 기록적으로 표현하며 현재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작품 주요개념으로 본론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서술되었다.

<Breath> 에서는 연구자가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비눗방울의 일시성을 유사점을 서술하며, 설치미술작가 차이귀창 의 작품을 살며보며 본인의 작품과의 차이점과 재료실험적인 과정을 논의하고자한다.

<New wave> 에서는 여행을 하며 익숙하게 느껴진 특정장소에 느껴진 새로움을 설명하고 비눗방울의 본연의 모습으로 공간을 재현하며 재료 중첩으로 표현된 조형적 모습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시리즈인 <얼굴들>은 연구자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어 관계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구상적인 표현으로 연구자 마음 속 내포되어진 이미지로

형상 표현하며 해석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연구자 시각에 의해 조성된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비눗방울이라는 일시적인 물성이 작품 속 영속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실험적 연구들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작품 방향성에 대해 서술하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II. Breath

1) 작품의도와 배경

어릴 적 가장신기하고 재미있었던 놀이 중 하나는 비눗방울 놀이였다.

연구자의 숨을 통해 나오는 비눗방울 형태의 모습은 금세 터지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모습이 우리가 매일 우연히 느끼고 사라지는 감정과 기분들이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현재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물질으로 다가왔다.

연구자는 이러한 감정들을 기록적으로 남기어 표현하였고, 비눗방울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물질 적 특징의 모습을 실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의 설치미술가 차이귀창(CAI-GUO-QIANG)¹⁾의 폭발 이벤트 시리즈와 부분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화약을 작품 내용에 포함시키어 하늘을 캔버스 삼아 폭발이벤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개념과 시각적인 화두를 표현하였으며 【도판1】 일시적이고 예측불가의 매체로 표현된 작품들이 연구자의 작품 속 주 재료인 비눗방울의 모습과 유사성이 있다. 하늘을 배경삼아 퍼포먼스 적인 차이귀창의 작품과 달리 연구자는 평면적인 화면에 영속적인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을 차이점으로 보여 진다.

연구자 작품 속 비눗방울이 보여주는 재료기법의 특징은 불규칙적인 배열들이 보여주는 예측되어지지 않은 곡선의 형태와 방울들의 모습이 【작품1】 연구자의 감정표현 재현에 용이하였으며, 연구자가 생각하는 대상의 재현을 추상적 표현으로 시작되는 계기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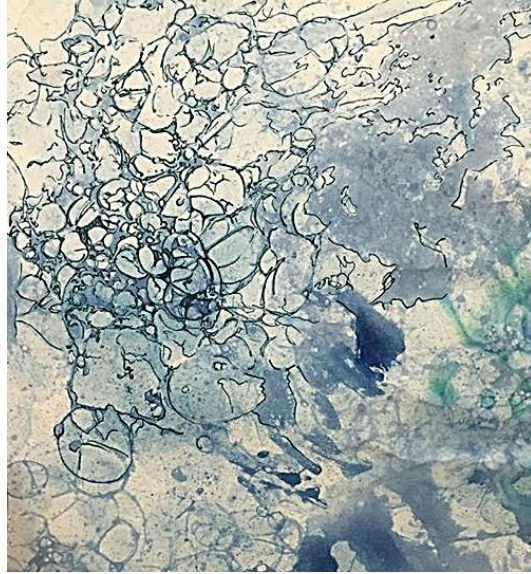
1) 중국의 설치미술가. 화약이라는 소재를 작품에 도입하여 '폭발 이벤트' 시리즈로 세계 미술계에 등장했다. 실험적인 사회 프로젝트들을 맡아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축전 행사를 맡아 창작하기도 하였다.



【도판1】 Mont Sainte-Victoire_275 × 200 cm_화약의 사이프러스 캔버스_2019_차이귀창



【도판2】 2020 년 9 월 25 일 코냐크 샤랑트 강에서 실현됨 , 9 월 25 일 오후 3시 10 분,
15 분 21,915 개의 불꽃놀이, 150 개의 오크 배럴_차이귀창



【작품1】 No title 1(비눗방울 드로잉)_ 스케치북 위 볼펜 _2017



【작품2】 No title 2_ 72.7cm x53cm_ 장지 위 혼합재료_ 2017

2) 작품해석과 기법표현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기 밖의 무언가와 마주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²⁾ 인간이든 동물이든 가장 솔직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생각되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대비점이 되기도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러한 상황 속 기억들은 잔상으로 남아 경험 속 현재의 ‘나’ 자신을 완성시키는 역사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런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불안, 조바심, 설레임이 내포된 정서의 관점들을 하나의 작업소재로 나타내 보려하였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연구자는 정서적인 표현이 떠오르며, 생리적인 통증, 배고픔,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어 궁지, 질투 그리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현상들을 아우르는 단어인 것 같다.

연구자가 단순 육체적으로 느껴진 두려운 【작품3】, 【작품4】 감정의 연계점으로 ‘조바심’과 ‘불안’에 대한 내면적 형상을 표현해 보았다. 거품 속에 시야가 가려 보이지 않는 모습 속 단순한 행동부터 미지의 세계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 조급함은 뻑뻑한 어둠속 울퉁불퉁한 행로와 알 수 없는 형태로 쌓여져 있는 동굴 속 돌덩이들의 형태적 표현을 내면적 표현 대상으로 화면에 구성해보았다. 영어에서는 ‘감정’과 ‘정서’가 구분되어 지는데 두려움은 비교적 솔직한 ‘감정’에 가깝고 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얼굴 과 몸짓 자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숨길 수 없는 본연의 모습이라 생각되어 비눗방울 자체 모습으로 작품을 표현해보았다.

2) 이에미. "두려움의 철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번역·TESOL 대학원, 2010. 서울p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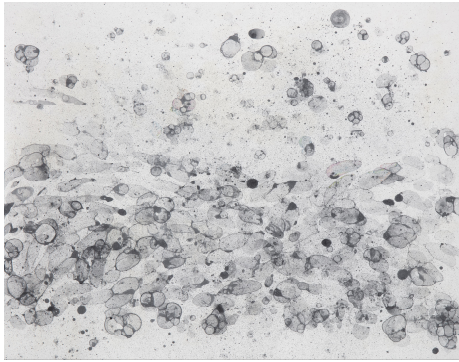
【작품5】는 또 다른 두려움의 해석으로 두려움 속 아름다움을 생각해보았고 이는 승고³⁾의 표현으로 해석되어졌다. 더 자유롭고 유동적인 내면의 모습들의 표현으로 두려움 속 아름다움을 태도 적 표현으로 담아보았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두려움은 포괄적인 의미여서 우리 삶에 많은 의미들을 파괴할 수도 있고 억압적인 결과물을 초래 할 수 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⁴⁾은 ‘변형된 두려움’을 언급하였는데 위협적인 대상과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비롯된 두려움도 아니고 그러한 대상에 노출 된 적이 있어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아닌 아무런 경과 없이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의 느낌으로 구현되는 두려움이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이론과 공감되는 모습지점으로 어찌면 우리가 모든 것을 두려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시각 점의 모습을 형상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정하는 문화적 경향이 있으며 연결된 대상을 찾아 유동적인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연구자는 희망을 갖는 태도에 대해 배워가며 희망은 사람들을 확충시키고 포용하는 무궁무진함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들을 작품으로 구성해보았다. 【작품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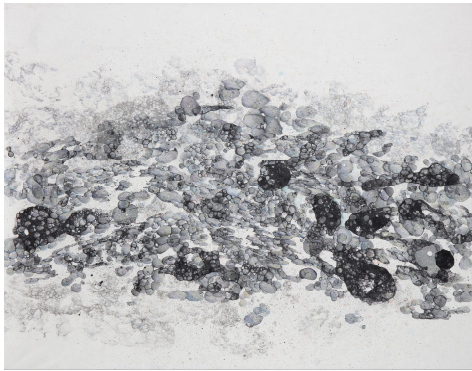
<Breath>의 시리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하여 구상되어졌다. 연구자 자신의 감정 속 태도의 배움을 기록적으로 남기듯이 먹물과 비눗방울들의 혼합하여 무채색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비눗방울 본연의 모습인 불규칙적인 방울들의 표현은 내면적 재현의 표현으로 효과적이었으며, 실험은 앞으로의 작품과정의 확장이 되었다.

3) 미적 범주의 하나. 자연을 인식하는 ‘나’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의식이 나타난다. 인간의 보통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경이(驚異), 외경(畏敬), 위대함 따위의 느낌을 준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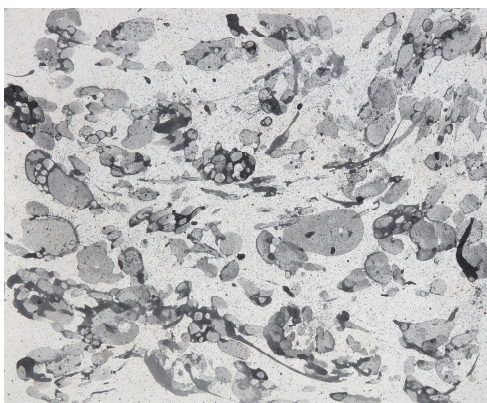
4) 지그문트 바우만(폴란드어: Zygmunt Bauman, 1925년 11월 19일 - 2017년 1월 9일)은 폴란드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이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작품3】 No title 2_장지 위 혼합재료_73cm x53cm_2017



【작품4】 No title 2_ 장지 위 혼합재료_ 73cm x53cm_2017



【작품5】 No title 2_장지 위 혼합재료_ 73cm x53cm_2017



【작품6】 Infinity_ 장지 위 혼합재료_ 160cm x30cm_2017

Ⅲ. New wave

1) 작품의도와 배경

<New wave> 시리즈는 연구자가 여행을 하며 보여 지는 특정장소 속에서 발견된 장면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여행 속 새로운 시각 점으로 다가온 장소들 속에서 느껴진 모습들을 재현하며 비눗방울의 형태를 조형적 모습으로 중첩시키어 재구성하였다. 재료적 소재의 중첩적인 표현을 스탠리 카벨⁵⁾의 ‘자동기법(automatism)’의 관념 속 연구자의 작업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다.

“카벨 에게 예술에서의 매체의 창조는 곧 자동기법의 창조다. 자동기법이라는 관념은 전통적 매체의 물질적 기법 적 구성요소 (회화의 경우 페인트와 캔버스, 붓의 터치, 음악의 경우 사운드와 연주 기법) 뿐 아니라 특정 예술작품을 조직하는 형식과 장르 규칙 또한 포함한다.”⁶⁾

재료들이 보여주는 당연한 지점들의 재료적 특성 의미를 생각하는 이론의 방법으로써 연구자 작품 속 비눗방울들이 당연하게 보여주는 물성실험의 표현으로 불규칙적의 모습들이 조형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실험적인 방법들의 계기가 되었다.

5) 스탠리 루이 카벨 (/ K ə V의 e의 L / ; 1926년 9월 1일 - 2018 년 6 월 19 일)가이었다 미국의 철학자 . 그는 Walter M. Cabot 미학 교수이자 하버드 대학 의 일반 가치 이론 교수였습니다 . 그는 윤리학 , 미학 및 일반 언어 철학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6) 로잘린드 크라우스, 『북해에서의 항해』, 옮긴이 김지훈, 현실문화A,2017,pp111

2) 작품해석과 기법표현

여행을 떠날 때에 가장 두렵기도 설레기도 하는 장소는 비행기 안이다. 【작품7】은 비행기 안에서 이륙하기 전 마주한 나라의 모습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주한 나라의 모습은 경험의 차이로 다르게 보여 지는 인식의 차이점을 호분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이미지 재현으로 표현해보며 다양한 장소 인식적 관점들을 관찰해보았다.



【작품7】 under _ 장지 위 혼합재료_ 53cm x45cm_2017

비눗방울에 호분을 섞어 중첩적인 표현으로 화면 속 조형적인 모습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험은 재료 도구적 실험으로 관람자들의 시선에 비눗방울이 입체적인 형태로 다가와 시각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8】은 산의 고등선과 봉우리들의 이어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으며, 등산을 하며 느껴지는 산을 후각과 시각적 심성을 활용하여 구성된 작품으로 연구자의 작품에 확장성 사고로 발현되어 표현해보았다. 연구자가 느낀 후각적인 산의 모습을 재현할 때에 자연스럽게 시각이 멈춘 나무의 모습은 산 속 또 다른 곡선의 모습들을 담고 있으며 【작품9】의 형태로 구현해보았다. 후각적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대상은 나무아래의 흙으로 【작품10】 산 이라는 장소 속에서 후각적으로 느껴지는 특징이 생각되었다. 후각적으로 느껴진 모습의 재현은 연구자에게 감각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심미적 대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작품 속 보여 지는 호분과 다른 동양재료의 중첩 표현은 장소를 재현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각자의 기억을 상기시켜 인식되어진 장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연상 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작품8】 산_장지 위 혼합재료_66.5cm x 21.2cm_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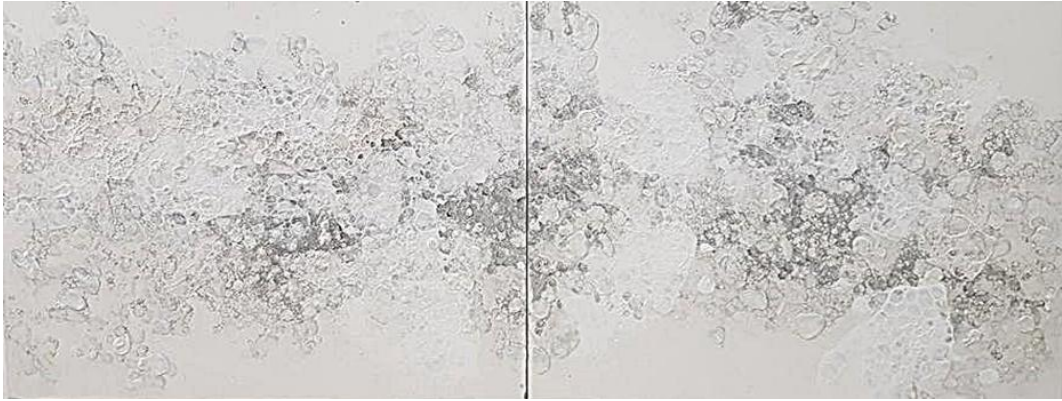


【작품9】 Tree_장지 위 혼합재료_ 18cm x 16cm_2017

【작품10】 흙_ 장지 위 혼합재료_ 91cm x 72cm_ 2017

【작품11】은 제주도 여행 중 만난 바다 속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바다는 늘 일관성 있는 모습이 아닌 변화되는 모습이 많은 장소 중에 하나로 연구자 역시 늘 변화되는 감정기복들에 대한 모습의 유사점에 소재가 되었다. 화면 속 재현의 소재들은 맑은 바닷물 속 보여 지는 따개비, 굴, 거북손, 고둥, 등의 생물들이 갖고 있는 색감과 촉감적인 모습들을 표현해보았으며, 유연한 물결들이 느껴지는 바다 속에 대조되는 딱딱하고 거친 생명들의 모습을 호분과 방해말 을 더하여 느껴진 촉감 적 재현에 적합하였으며, 연구자가 느껴진 바다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얕은 바다의 투명하고 청명함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날씨와 빛에 의해 반사되는 바다의 색감이 다르게 보여 진다. 【작품12】는 2017년 코타키나 발루에 있는 만따나니 섬에서 씨 워크(sea walk) 를 하던 풍경의 재현으로 바다 속을 걸어 다니며 보여 지는 생물들과 해초들을 바라본 경험은 연구자에게 넓은 시각 점의 계기가 되었다. 해초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마치 육지에서 산수(山水)의 풍경을 보듯 웅장하였고 온 몸으로 느껴진 바다 속의 모습은 평소 연구자가 딛고 있는 육지 아래의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세상 이였다. 다양한 바다생물이 내포하고 있는 색감들을 붓으로 그리어 순간의 모습들을 기록적으로 표현하였고 연구자가 느껴진 바다 속 색감과 빛에 대한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화면 위 호분과 반짝거리는 재료들을 중첩시키어 재구성하여 작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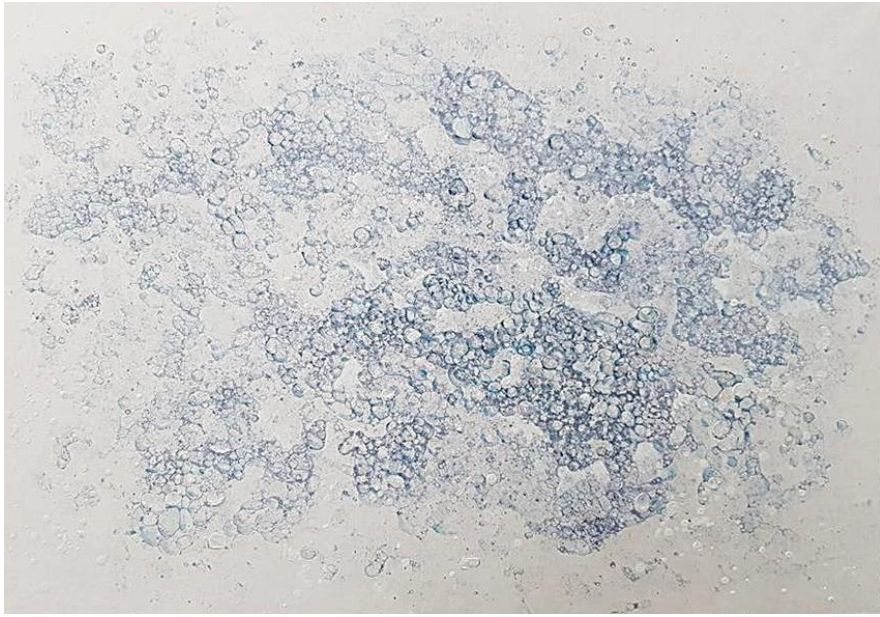
【작품11】 바다_ 장지 위 혼합재료_66.5cm x 21.2cm_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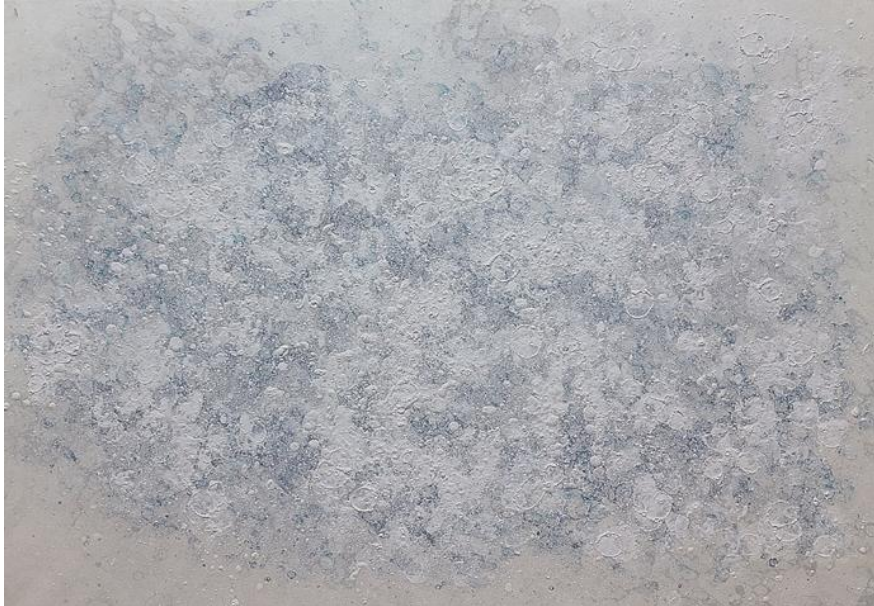
【작품12】 under the sea _ 장지 위 혼합재료_160cm x30cm_ 2017

작품 속화면 위 다른 재료들의 중첩표현은 연구자 작업에 또 다른 의미점이 부여되는데, 앞서 작업들은 특정장소에서 재현된 표현이라면 연자의 내면의 인식에 새로운 시각점이 부여된 지점들을 비유적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13】 작품 제작 당시 행복하게 다가왔던 소재들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 잊고 싶은 소재들로 남겨져 재료중첩을 통하여 치유적 의미로 재해석 해보았다. 【작품14】의 보여진 모습과 같이 중첩의 표현은 과거의 기억들을 덮어 또 다른 인식의 재해석으로 표현하여 작업하였다.

< New wave> 시리즈는 이처럼 연구자가 새롭게 느껴진 시각점들을 기록적으로 표현을 주제로 재료중첩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시각구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성된 작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13】 20140831_ 장지 위 혼합재료_ 72.2cm x 53cm_ 2017



【작품14】 20190222_ 장지 위 혼합재료_72.2cm x 53cm_ 2018

IV. 얼굴들

1) 작품의도와 배경

사물 형상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형상 속에 내재된 의미를 표현하며 연구자의 생각이나 정신이 작품을 통해 반영되어 지도록 작업하였다.

<얼굴들>시리즈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하며 현대사회 속 관계된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형상들에 대한 구상표현으로 비눗방울은 터져 사라지지만 우리들 기억 속 잔상으로 남아 존재하는 타자의 모습들을 표현해보았다. '나' 자신의 존재가치와 타자와 함께 하는 공존을 표현함의 의미로 비눗방울로 드로잉 표현의 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존재에 대한 의미와 타자의 존재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작품해석과 기법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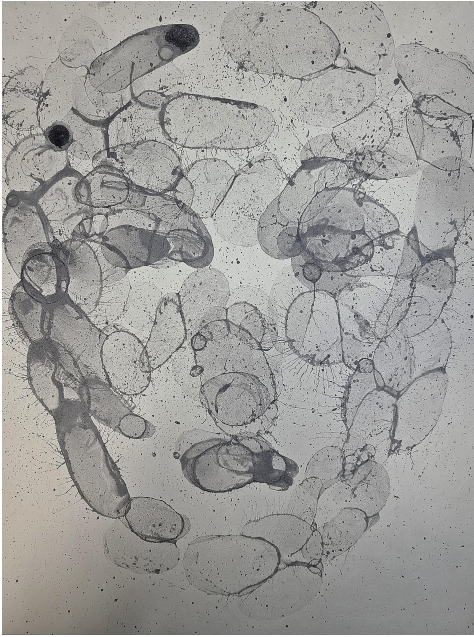
인간에 의문점의 관심을 갖는 건 첫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작품15】 【작품16】의 작업은 나 자신에게 보여지고 싶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었고, 연구자 작품에서 사용된 어두운 색감은 솔직함의 상징적인 의미로 대변하며 작품을 형성하였다. 두 얼굴 중 오른쪽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식하는 형상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의 눈에 비춰진 자아의 모습으로 작업하였다. 내가 보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라는 자아는 많은 차이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타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작업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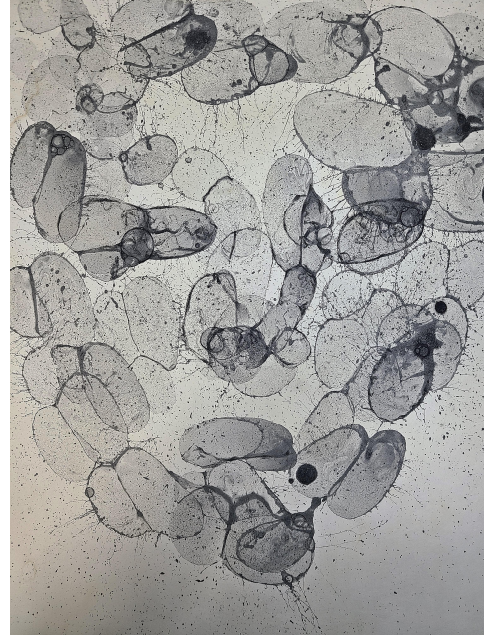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B.C.384~322) ⁷⁾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였듯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혹은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작업하게 된 계기점이며, 【작품17】은 연구자 내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형상 표현하였다.

연구자작업에서 타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요소는 비눗방울의 물성 적 특징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비눗방울은 같은 물성들 끼리 끌어드리고 겹쳐지는 모습들이 작품 속 모습과 같이 엮여 표현되어지는 지점이다. 또한 나 자신의 주체는 사회 속에서 타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성의 의미로 비눗방울 존재의 의미로 비유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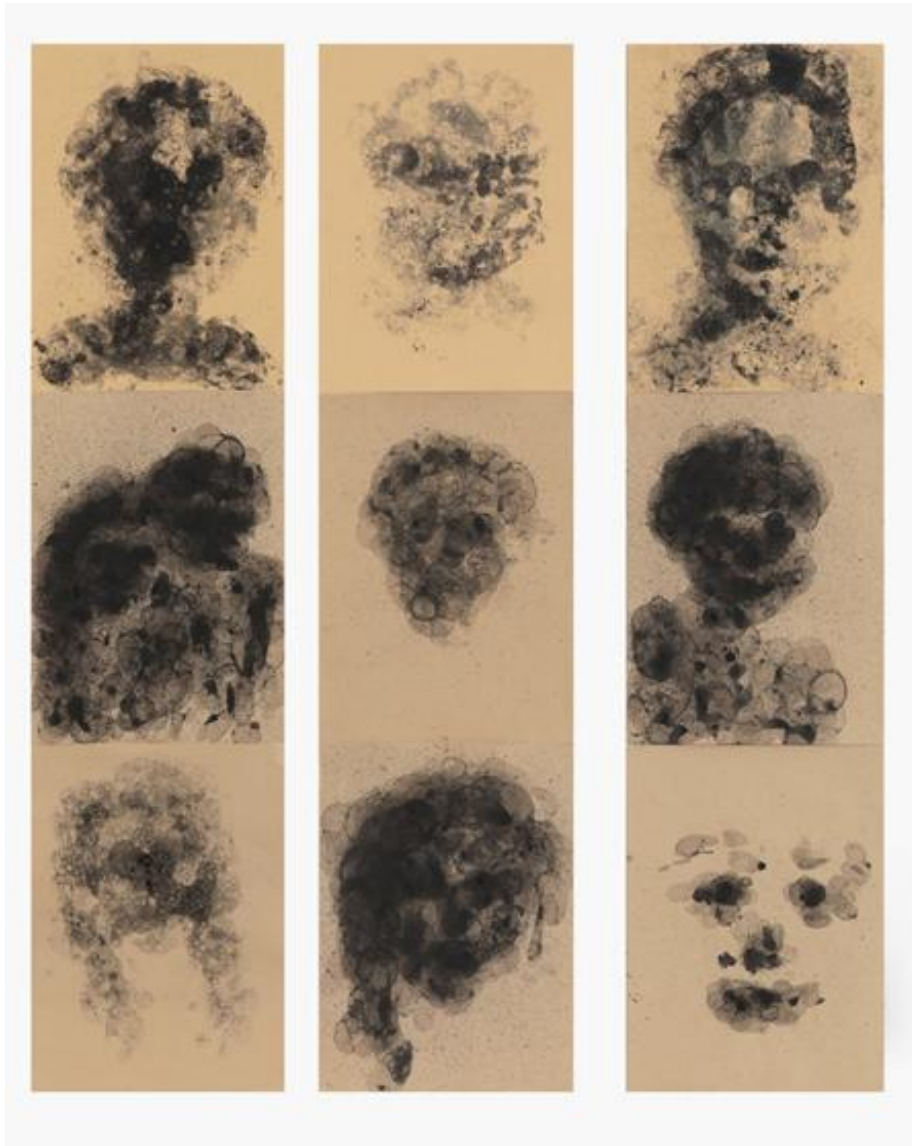
7)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네이버 지식백과



【작품15】 자화상1 _ 장지 위 혼합재료 _18cm x 16cm _ 2018



【작품16】 자화상2 _ 장지 위 혼합재료 _18cm x 16cm _ 2018



【작품17】 얼굴들 _ 크레프트지 위 혼합재료_146cm x 112cm _ 2018

【작품18】은 연구자의 얼굴의 형상을 통해 인간관계의 경험되는 내면의 심상들의 표현을 하였다면, 현대 사회 속에서 겪는 여러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 불안정 하고 혼란스러워 하며 타자들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자아 정체성의 회복 방안들을 되돌아보며 연구자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는 과정의 내면적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작품18】 자화상3 _ 장지 위 혼합재료 _72.2cm x 53cm _ 2018

【작품19】는 자아에 대한 고민과 계기 점 속에 우리 모두 여러 고민 속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깨달음 속 경험적 배움의 태도로 주체적인 자아가 완성되어 단단한 내면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모습을 뿌리에 빗대어 표현해 보았다.

<얼굴들> 시리즈는 비눗방울을 통해 재해석 하는 과정의 작업들을 담아 표현되었으며 다른 시리즈들과 다르게 연구자 자신의 자아에 대한 내면적 모습을 구상적으로 작업하였다. 앞서 시리즈와 다르게 비눗방울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 재료 특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어 조형적 접근을 통한 자아의 표현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작품19】 root _ 장지 위 혼합재료 _ 234cm x 178cm _2019

Ⅲ. 결 론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느낌을 받는 장소 사물 물성 등은 개개인마다 다양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끌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끌림에서 다가오는 느낌들에 감동 기쁨 설레임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 개인이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비눗방울의 물성적 실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비눗방울의 물성 적 특징은 공기를 머금고 있는 비눗물의 존재로 약하고 일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물성이 내포 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며 시각과 행동 속에서 다시금 되돌아 해석해보며 연구자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생각들을 투영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다. <Breath> 에서는 비눗방울처럼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기억되는 감정과 기분을 빗대어 표현하였고 <New wave> 에서 표현된 감정과 기분들은 장소재현을 통한 비눗방울의 중첩적인 실험과 연구자의 내면의 치유 적 의미의 과정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지막 <얼굴들> 은 연구자 스스로 자신을 주관적 혹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면적인 모습들을 형상으로서 재현해보았으며 모두 시간의 흔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끝으로 논문을 마치며 연구자가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비눗방울의 배열들처럼 예측할 수 없으며 비눗방울의 물성의 특징처럼 모든 상황이 영원할 수 없듯이 과거 혹은 현재의 인식들에 환기를 담아 나 자신의 새로운 시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비눗방울을 통해 이야기 하며 연구자가 느꼈던 아름다움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연구하며 짧은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기대 점으로 비눗방울들의 영속성에 대한 무궁무진함을 관람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로잘린드 크라우스, 「북해에서의 항해」, 현실문화A, 2017

학위논문

이예미. "두려움의 철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번역·TESOL 대학원, 2010

ABSTRACT

painting through traces of soap bubbles

- Focused on the Researcher's Own works-

Min, Ju M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Based on research work from 2017 to 2020, this paper aims to talk about <Breath> exhibition work before applying for a master's degree in 2020. The concern about <Breath> began in 2017 with the curiosity of the physical nature of soap bubbles and was studied and captured in the work through physical material techniques.

Soapy bubbles have the property of disappearing and bursting quickly, and they are the property that implies the time that exists today, beginning with the question of permanence. The researcher was inferred that the emotions and feelings he accidentally felt were temporary and insignificant, and the meanings in the work were expressed in the

material of soap bubbles in the researcher's mind, where, where, where, where, and who were together.

In order to effectively show the lasting appearance of these bubbles, the series was divided into material experiments, and the process of experimenting with the stories in the work by mixing and overlapping ink and potting on the oriental painting material Jangji. Based on Barnett Newman's methodology, these studies seek to examine the processes reinterpreted in the work of researchers.

This paper is described in the following order:

In the main theory I <Breath>, we will project the "feelings" that the researcher felt during the trip to find out what function they performed and what the results were, and experimentally talk about the background and way of expressing the original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oap bubble. In Bonn II <New wave>, we studied place reproductive experiments with 'memory' of a particular place. I would like to express the experimental research process of materials by talking about the process of looking back at the current perspective. The main theory III <Faces> is an experiment on the idea that the researcher interpreted the images of the people he/she had with while traveling, expressing the images implicit in the researcher's mind.

In the final conclusion, I would like to finish this paper by explaining the complementary point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work through the process and experiment of expressing the work by giving a lasting look to the soap bubbles based on the experience felt in the trip.


인 준 서

민주미의 석사 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이만수 _____ 

심사위원 _____ 유근택 _____ 

심사위원 _____ 권기범 _____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